

요양시설은 '복마전'

국고 보조금 빼먹은 前 시의원·의사 등 무더기 적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설립·운영과 정에서 ▲국고보조금 편취 및 횡령 ▲환자 유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 광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상윤)는 23일 광주·전남지역 38개 요양 병원과 광주 15개 요양원에 대한 압 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각종 불·탈법을 저지른 8개 요양병원과 3 개 요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전 광주시의회 의원 김모(57)씨와 보조금 신청·집행에 관한 편의대로 요양시설 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강모(49·5급)씨 등 27명을 각각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전 광주 시의원 김씨는 지난 4월 노인 요양시설 건축 선금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1억6천만원을 보궐선거에 출마하

면서 벌린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또 S복지재단 이사들과 함께 자신들이 출연한 재단 소유의 재산 매각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해 6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또 공무원 강씨는 2006년 12월께 한 요양원 원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편의를便利"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요양원 원장 조모(50)씨는 사무 국장과 건설업체 이사, 부식업체 대표와 째 200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요양원 건설 공사 허위경적서를

광주시청에 제출해 보조금 3천600만 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부식대금까지 부풀려 차액 6천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 명의 빌려 병원 개설도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로 고용해 병원을 개원·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도 적발됐다.

기모(46)씨 등 2명은 한의사와 의사의 명의를 빌려 2005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광주지역에 요양병원 2개를 개설·운영하며 43억원 상당

의 의료급여를 받아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 문모씨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환자 유인 행위도 만연=김모(49)씨 등 요양병원 관계자 3명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요양원 등 복지시설 운영자 등에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천200만원을 기부금 형태로 지급하고 환자 44~83명을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사실상 돈을 주고 복지시설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셈이다.

◇브로커, 부정대출도 적발=광주 시청 노인복지법인 허가 담당 공무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요양원 설립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요양원 설립 희망자들에게 6천800만원을 수수한 박모(56)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의료재단 운영비나 요양병원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238억 원을 부정하게 대출해 준 국책은행 간부 정모(44)씨는 이미 구속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에너지 체험학습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2008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2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어린이들이 에너지증합학습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무원이 보조금 주고 뇌물 쟁겨

■ 요양시설 문제점

검찰 수사로 밝혀진 광주·전남지역 일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에 서부터 운영까지 모두가 비리로 얼룩진 '복마전' 그 자체였다.

국고 보조금 횡령에서부터 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 거래', 무자격자의 병원 개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온갖 비리의 온상 뒤에는 제도적인 허점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는 요양급여 비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요양원의 경우 설립 허가 부서와 보조금 관리 부서의 업무가 연계되지 않아 면밀한 검토나 확인 작업 없이 보조금이 줄줄 새도록 방지한 셈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령인구·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증가와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요양 병원과 요양시설이 노인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면서 "요양시설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요양병원이 허위 청구하

전남대 사시 2차 19명 합격

전국 10위...지방대 중 2위

전남대가 사법고시 합격자 순위에서 전국 10위, 지방대 2위를 기록했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제50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중 전남대 출신은 지난해보다 1명 줄어든 19명으로 전국 대학 중 10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서울대로 전체 합격자 1천5명의 27.

3%인 274명이었다. 다음은 ▲고려대 183명 ▲연세대 105명 ▲성균관대 76명 ▲이화여대 64명 ▲한양대 53명 ▲중앙대 26명 ▲부산대 22명 ▲서강대 20명 등 순이었다. 지방대학 중에서는 전남대가 부산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전남대 합격자의 절반에 가까운 8명(42.1%)이 여성으로 전체 합격자 중 여성 비율(38.2%)을 웃돌았다. 한편 23일 발표한 행정고시에는 전남대 출신이 1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물들어가는 산과 들

차차 맑아지겠고 바다의 물결이 다소 높게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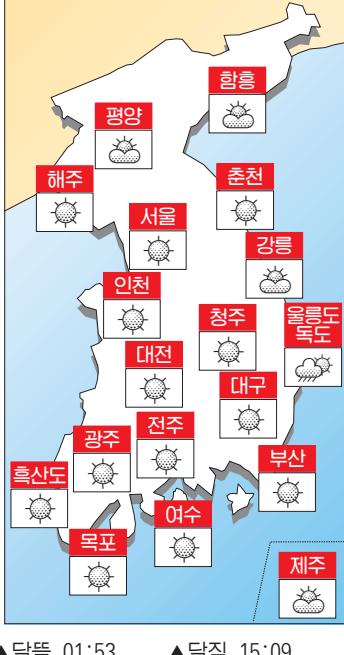
광주	조금	13~19°C
포항	조금	15~18°C
여수	조금	16~19°C
원도	조금	13~19°C
구례	조금	10~19°C
해남	조금	10~19°C
장수	조금	13~20°C
순창	조금	10~19°C
영진	조금	11~18°C
전주	조금	14~18°C
남원	조금	12~18°C
봉산	조금	10~19°C
신안	조금	15~17°C

10월 24일

(음 9월 26일)



◇전국날씨



▲해뜸 06:46 ▲해침 17:47 ▲달뜰 01:53 ▲달침 15:09

기상안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7/19	7/20	7/21	9/21	8/20	8/20

"학교에 따라 학생 성적 달라진다"

교육개발원 김양분 박사팀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 향상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입증한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박사팀이 23일 내놓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성장에 관한 중학교 학교' 논문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교육종단 연구 결과 학생의 성적 향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종단연구원은 2005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성장, 발달 상황을 조사하고 고교 졸업 이후의 대학 진학, 직업 획득 과정을 만 30 세까지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교육개발원의 대표적 연구사업을 말한다.

전국에서 표집한 150개 중학교, 6천908명의 학생이 조사대상으로 김 양분 박사는 이를 학생의 3개년(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점수, 학생자료, 학교 자료 등을 토대로 성적변화와 학교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학교과의 경우 입학 직후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중 학교 비중이 20%였지만 이들이 3학년이 된뒤 성적향상 여부를 결정짓는 인증 학교 비중은 88.7%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입학 당시 학생의 성적은 학교 자체의 역량(20%)보다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크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의 교육역량에 의해 개별 학생 성적이 달라지는 비율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대학편입 김영에 알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www.kimyoung.co.kr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득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임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를 살펴보는 회사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격 있게 경매를 실시한 후 수익성이 있는 무형물들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생활/생활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동네 대표이사 010-2648-2550

주택/폐기물 손이사 811-8611-2817

경매/토지/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68

경